

각종단 비구니 스님 활동 '기지개'

각 종단 비구니 스님들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각각 전체총회와 정기총회를 갖고 조직 강화에 나섰다. 천태종 비구니 스님들도 올해부터 각 사찰의 지도법사를 맡는 등 역할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륵종과 법상종은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비구니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종단들 중에서 가장 활성화 된 곳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3월 30일 서울 수서동 비구니회관 범룡사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원로의원 추대를 결의했다. 16년 만에 열린 이날 전체총회에서는 종단 내에 비구니부 신설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위상강화에 힘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여초)는 4월 4일 서울 금호동 여의정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전국 11개 교구종무원에 비구니 지역장을

선임하는 등 조직 강화에 나섰다. 나머지 10여개 지역장은 4월 18일 월례회의에서 선임할 계획이다.

비구니회는 교구종무원별로 매달 비구니 모임을 상설화 하고, 전국 본원장이 참가하는 정기총회도 분기마다 열기로 했다. 또 4월부터 매월 음력 10일 여의정사에서 스님과 교수 초청 강연회를 열 계획이며, 종단 소속 1200여명의 비구니 스님 명단과 사진이 들어가는 비구니 수첩을 제작기로 했다.

청소년 법회와 복지부본 지도법사의 소임을 맡아온 천태종 비구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4월4일 서울 금호동 여의정사에서 개최한 정기총회 모습.

조계·태고종 비구니회 총회 열고 조직강화 박차

천태종 재가자 수행지도 법상·미륵종 전국조직 준비

니 스님들은 올해부터 각 사찰에서 지도법사를 맡아 신도들의 수행지도까지 도맡고 있다. 천태종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은 매년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비구니회 구성에 착수한 종단도 속속 늘고 있다.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4월 7

일 평택 종무원에서 정기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비구니회 발족을 정식으로 결의했다.

법상종은 이날 노인복지사업과 청소년 포교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구니회 정관을 마련했다. 법상종은 5월 4일에 전국 비구니 모임을 개최해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은 비구니회 재구성을 추진 중이다. 미륵종은 지난해 비구니회를 출범시켰으나 그동안 활동이 미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륵종은 비구니 스님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 내로 비구니회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총화종, 원웅종, 일승종 비구니회도 조직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원우·강유신 기자

조계종 예비스님 154명 배출

28기 행자교육원 회향

조계종 제28기 행자교육원(운영위원장 현응)이 4월 7일 예비스님 154명(사미96, 사미니 58)을 배출했다. 28기 행자교육원은 지난 3월 16일 155명의 행자가 입교한 가운데 23일간 예경의식과 작법, 경략, 율학, 위의, 습의 등 예비승려 교육

을 실시했으며, 이날 해인사 보경당에서 수계산립을 회향했다. 이에 앞서 6일 실시한 5급 승가교시는 158명이 응시, 154명이 합격했다.

회향식에서 154명 사미(니)들은 발원문을 통해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잃지 않고 중생제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조용수 기자

미륵종 스님 등 200명

태국 파타야 성지순례

미륵종은 태국 파타야 등을 둘러보는 불교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부원장 영각 스님, 사무총장 보성 스님 등 40여 스님을 비롯해 200여 명이 동참했다. 미륵종 성지순례단은 3월 29일 현지로 떠나 불

교 성지인 태국의 옛 수도 아유타야와 방콕 에머랄드 사원 등을 방문하고 4월 2일 돌아왔다.

송정 스님은 3월 29일 세계 최대의 불탑사원인 나콘파툼의 체디사원을 방문, 주지 스님과 선물을 교환하고 양국 불교문화 교류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나콘파툼은 태국 중서부의 불교도시로 인도 아소카왕에 의한 불교전래를 기념하기 위해 탑을 세웠다.

강유신 기자

태고종 경기동부 종무원장

청봉 스님 취임

태고종 경기동부교구 6대 종무원장 청봉 스님의 취임법회가 3월 31일 양평 대명콘도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종무원장 청봉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대승교화종단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여 지역 사회는 물론 한국불교계를 선도하는 종무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다해 소신껏 종무원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분원조직의 활성화 △종무원의 정체성 확립 △승가 공동체 구현 △승단의 기강 확립과 승풍 진작 △지역사회 역할 증대 △종단불사에 적극 동참 등 하는 풍토 조성 등의 종무원 운영지표를 밝혔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중앙종회의장 인공, 총무원 부원장 자철·보경, 교무부장 법현, 양평불교사암연합회장 화암, 인천종무원장 대은, 강원종무원장 백은,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장 여초 스님과 정병국 국회의원, 한택수 양평군수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김원우 기자

법인종, 청송훈련소 위문

연예인 초청 위문공연



청송직업훈련소에서 열린 연예인 위문 공연에 참석한 법인종 만우 스님과 신도들.

법인종(총무원장 만우)은 3월 29일 청송직업훈련소에서 연예인 초청 위문공연을 실시했다. 청송직업훈련소는 청송 제1보호감호소가 폐쇄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게 설립된 기구다. 이날 위문공연에는 대중음악예호가협회원들과 함께 훈련교도소 임소생, 교정위원, 법인종 신도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강유신 기자

진각종 새 총리원장 누가될까

효암 총리원장, 회정·혜정 정사 물망...20일 종의회서 직선

진각종 제 27대 총리원장을 선출하는 종의회(의장 진산)가 4월 20일 서울 하회곡동 종인원에서 열렸다. 진각종 종의회 의원 37명의 직접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총리원장 선거는 종헌종법에 따라 후보등록 절차가 없기 때문에 후보가 공식적으로 없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종단 일각에서 제 27대 총리원장 후보로 현 효암 총리원장과 전 총무부장 회정 정사, 교육원장 혜정 정사가 거론되고 있다. 효암 총리원장과 회정 정사는 4년 전 한번 격돌한 바 있다.

효암 총리원장은 종단의 거점인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큰 지지세를 갖고 있다. 현 효암 총리원장은



효암 총리원장, 회정 정사, 혜정 정사

종단의 안정기조위에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실다지기에 치중한다는 병이다.

회정 정사는 진각종 발전의 초석을 이뤘던 제 26대 성조 총리원장 당시 총무부장을 맡으며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개혁적인 성향으로 비춰진다. 지지세는 주로 서울에 집중

고 있다. 한편 진각종은 '교법을 바로 세우자'는 주제로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종인원에서 종단 산하 전 스승(정사, 전수, 교회사무 및 종합학교 정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59년도 총기스승강공을 개최한다.

김원우 기자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이 4월5일 대구 계산성당에 마련된 교황 오한바로 2교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교황 서거에 깊은 애도”

조계종 등 불교계 추도사 발표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시간으로 4월 3일 오전 4시 37분 서거한 가운데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과 정토회, 영남불교대 관승사가 각각 추도사를 발표

했다.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3일 발표한 추도사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 “가톨릭 복음화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셨던 분”이라며 “큰 별을 잃어버린 듯하다”고 애도했다.

조계종은 또 “교황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지남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추도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4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선종 애도메시지’를 통해 “국가와 민족,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교황의 위대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을 대표해 사회부장 정념스님과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이 각각 4.5일 서울 명동성당과 대구 계산성당을 방문, 조의를 표했다. 포항사암연합회 회장 난승 스님등 포항지역 불교계 대표들도 7일 죽도성당에서 열린 교황추모 미사에 참석해 애도했다.

김원우·남동우 기자

농협에 조계종 전담창구

종로지점 신속서비스 제공

농협 종로지점(지점장 환경식)에 전국 최초로 '조계종 전담창구'가 개설됐다. 조계종 전담창구에서는 스님들이 농협 방문시 신속한 은행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남동우 기자

2005年新/製/品 스님용 신발 滿行靴

수제화 - 만행화
■ 규격 : 215~290(mm)

발바바 내부구조

● 발바닥 경락도

발명특허 제4722호 출원
실용신안 제2318호 출원
장 제1689호 출원
상 표 제2956호 출원

1. 단원특징

- 한국 고구신교 기준 스님 치수로 제작
- 만행 및 포행시 단정함을 유지 (수행자 복장과 조화)
- 외국에서도 한국스님의 품위를 유지 (한국스님 신발로 인정)

2. 색상구분

- 스님용 : 회색, 백, 흑
- 신도용 : 흑, 백, 자주색

3. 가격
80,000원

제조원: **백산아트** | **만행회** | www.manhaenghwa.co.kr

문의 및 주문: TEL : (02) 927-5715 | H.P : 011-9000-5715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212 동협 063-12-250427 | 예금주: 구자민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병의 고통을 받는 여러 불자님들께 청정한 황토물 감로수(지장수)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혜스님

청정한 우리 사찰에서는 이해 못할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물 영각과 백의관세음보살의 기도 가피 원력으로 마음병, 몸의병 (특히 위장병, 장병, 변비 같은 만성질환 등), 이토피 피부병 환자들이 왕림하셔서 정진기도와 감로수 물을 드시고 많이 좋아 지셨습니다.

청정 감로수 물(지장 水: 사찰내에서 부르는 이름)은 기도 중 백의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물로 많은 중생을 건지시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본 사찰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황토물 지장수를 드려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많은 불자님들께 지장수를 드려 병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발원하였습니다.

나쁜일을 지으면 인과응보를 받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치악산 포교당 연화정사는 자비의 마음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항상 선행을 행하며, 부처님 정법포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의관세음보살님

◆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천안 방향을 타시고 성환역에 하차하시어 우신 1리 연화정사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치악산 상원사 포교당 연화정사
041)588-7779, 010-6772-7485